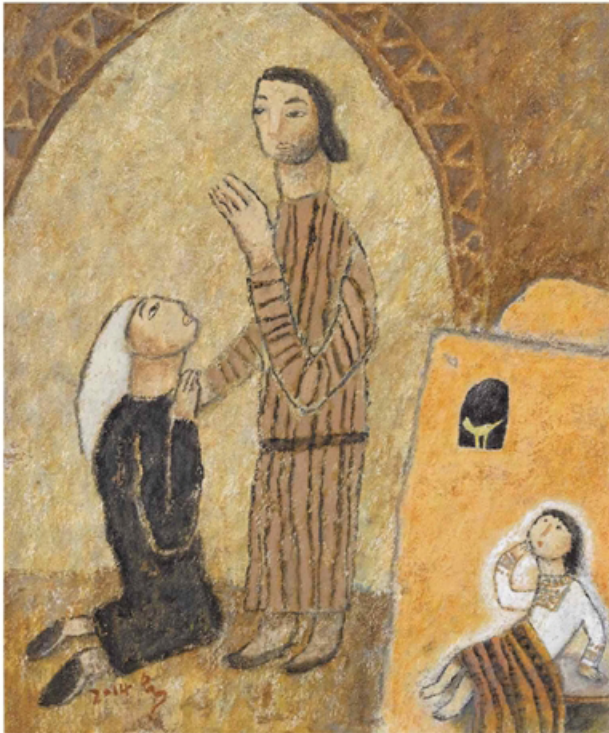




복음나누기

연중 제20주일(8월 20일)
가나안 여자의 믿음
(마태 15,21-28)



한 여인의 믿음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출처 : 서울주보, 2014. 8. 17.)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마태 15,28)

복음의 내용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십니다. 항구하게 어떠한 처지에 서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그분께 희망을 둔다면 주님은 크나큰 사랑과 구원으로 응답하십니다.



복음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52번 ‘위험에 빠진 자에게’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21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22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23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24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25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26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27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8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마태 15,22)

나는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마태 15,27)

나는 내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람들로 부터 반대를 받는 순간에도 겸손하게 주님께 의탁하며 항구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해 시인은 자신의 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에서 "사랑하다 죽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사랑 없이 사는 것은 더 두려운 일이지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지요."라고 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도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죽음의 두려움도 넘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만난 가나안의 어떤 부인은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 부인은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하고 매달립니다. 사랑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매달리게 한 것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믿음은 어떤 반대와 역경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거듭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자신을 낮추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개 취급을 받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습니다. 사랑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향구한 믿음이 사랑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굳건해지고, 사랑의 실천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줄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1코린 13:7)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9번 "주께선 나의 피난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궁금했어요

전례주년의 기쁨은 무엇인가?

전례주년 안에서 교회는 강생에서 시작하여 영광스러운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거행한다. 아울러 정해진 날에 교회는 천주의 성모 복되신 마리아를 특별한 사랑으로 공경한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은 성인들도 기억한다.

해설

전례주년 곧 대림 시기로 시작되는 한 해의 전례는 우선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 하나를 전체적인 관련성 안에서 경축한다. 그리고 성모님의 여러 축일도 경축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신비 안에서 조명된다. 성인 축일도 마찬가지인데, 성인들의 삶은 결국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함, 곧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이므로 전례주년의 큰 틀 안에서 기리게 된다.

용어

천주의 성모 복되신 마리아

동정 마리아의 가장 빛나는 칭호다. 마리아는 복된 분이며(루카 1,42,48). 하느님의 어머니(루카 1,43 참조)로 공경받는다. 복되신 마리아, 천주의 성모 축일은 성탄 8일 축제의 끝인 1월 1일에 지낸다.

시간 전례란 무엇인가?

교회의 공적이며 통상적 기도인 시간 전례(성무일도)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와 함께 바치는 기도이다. 우리가 성찬례에서 거행하는 그리스도의 신비는 시간 전례를 통하여 매일의 시간을 거룩하게 변화시킨다. 이 기도는 주로 시편과 다른 성경 구절, 그리고 교부들과 영성가들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

오늘 하루는 거룩하고 주님을 찬미하는 데 매우 좋은 시간이다. 교회는 하루를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 시간 전례를 마련하였다. 이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예수님(루카 18, 1 이하)과, 사도(1테살 5,17)의 권고에 따른 것이며,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시간 전례는 초대송, 독서기도, 아침기도, 낮기도(삼시경·육시경·구시경), 저녁기도, 끝기도로 되어 있다.

용어

시간 전례 또는 성무일도

시간 전례 또한 전례 곧은 그리스도의 행위로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몸인 교회와 함께 바치는 기도다. 성무일도(거룩한 업무)라고 한 것은 성직자들이 매일 꼭 바쳐야 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왔지만, 이제는 성직자나 수도자뿐 아니라 일반 신자들이 바쳐야 하는 전례적 기도 이므로 '시간 전례'라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교부들과 영성가들

초기 교회의 스승이자 저술가들을 교부라 부르며, 성령 안에 새 삶을 산 거룩한 사람들을 영성가라고 부른다.

한림성서연구소에서 출판한 [말씀으로 익히는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에서 발췌하였습니다.